

**그리스도인의 자유 현장(사도행전 15장): 구약 유대교 완전 탈출 독립 선언**  
성경말씀: 행15:1-35

인류의 역사, 약 6,000년 구약 4,000년, 신약 2,000년

엄밀한 의미의 구약 시대: 율법의 수여 BC 1500년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

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부터 휴거가 있을 때까지

좁은 의미의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,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

구약 시대 율법: 의식법, 시민법, 도덕법

의식법, 시민법: 할례, 절기, 음식 규정 등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외적으로 구분하는 것

도덕법: 십계명, 안식일 규정의 변화 외에는 그대로 변함이 없다.

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: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, 롬8:1-3

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. 영원한 구원

예수님 부활 후 50일이 되어 오순절 날에 교회가 출생함. AD 30년경

그날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오 사람들 100% 유대인

구원의 순서, 교회의 순서 행1:8, 예루살렘, 유대, 사마리아, 땅 끝

사도행전 2-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이야기 100% 유대인 교회

8장: 사마리아, 에티오피아 내시, 반 유대인 반 이방인(함)

9장: 바울의 회심, 하나님의 말씀 행9:15-16(셀)

10장: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, 10년 정도 걸려서 드디어 이방인 회심(야벳)

11장, 유대인들의 맹비난, 어떻게 이방인 구원받을 수 있느냐? 다시 설명, 11:18

바나바의 안디옥 사역, 처음으로 그리스도인(26)

신약 시대 초창기 100% 유대인 신자, 외부 사람들도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

그런데 11장 후반부부터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교회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됨

13장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, 이교도들의 도시들, 예수 그리스도 선포, 대다수 유대인들 핍박,

이방인들이 많이 믿음

그 결과 팔레스타인 밖의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됨

드디어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반기: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

한다. 할례를 받고 의식법, 시민법 등 모두 지켜야 한다,

선교사들이 가는 데마다 이런 유대인 신자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선동함

14:26-28,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 13-14장, 안디옥으로 돌아옴

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하고(14:27) 오랫동안 안디옥에 머뭇

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김, 유대주의자들의 침입, 복음의 방해꾼들: 딱 막힌 사람들

이것은 AD 50년경, 이것이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크리스천이 독립하는 기회가 되고 말

오늘 제목 < >, 오순절 이후 20년이 지나서 완전히 유대교에서 독립함

**안디옥 교회의 분쟁(1-5)**

유대에서 온 자들의 주장(1):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.

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소속, 그러나 거기서 공식 파견된 것은 아니다(15:24).

바리새인들과 연관(15:4),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자들(갈2:4)

예루살렘 교회: 여전히 기존 틀을 벗지 못함, 은혜와 율법의 혼합

원래 유대인들은 율법 존중, 아직 로마서, 갈라디아서, 히브리서 등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

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교회에 있음(행6:7), 구약 율법 실천하는 자들(행21:20-26)

이 시기는 변천기, 시간이 걸린다.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. 기독교 세력

율법주의자들의 문제: 1. 은혜와 율법 혼합, 새 포도즙을 현 부대에 부으려 한다.

2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생명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한다.

3.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치우셨는데 이것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(엡 2:14-16). 4. 자기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한다(행15:10).

이들의 주장: 이방인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. 그 뒤에 구원이 있다. 즉 모세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.

1. 다른 복음(갈1:6-9)

지금도 더러 있다. “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. 우리 그룹에만 있다. 우리 식으로만...”

구원은 교회나 그룹이나 목사에게 있지 않다. 그리스도에게만 있다.

2. 복음 선교 문제: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무의미,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다. 안디옥 교인들은 혼돈 가운데 있었다(15:24),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신생 교회들에도 악영향

3. 갈2:2,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리더들에게 올라감, 안디옥 교회 동의(15:2),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지만 모든 교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된다.

### 이방인 옹호 발언(6-18)

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올라감(2)

약 4차례의 회의: 1. 공적 환영(4), 2. 바울과 주요 리더들의 사적 만남(갈2:2), 3.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듣는 공적 모임(15:5-6), 4. 공개 토론(6)

공개 토론에는 4명이 나서서 하나님이 여신 ‘열린 문’을 사람이 막지 말 것을 말함

1. 사도 베드로(6-11):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신 4가지 일 알림

1.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심(15:7),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역자(행2 등), 그 뒤 사마리아 사람들(행8:14-17), 그 뒤 이방인 고넬료(10), 유대인들의 비난, 베드로의 해명(11), 이방인 고넬료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음(7)

2.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심(15:8),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심,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성령님 주시는 것 불가능

3.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 구분을 없애심(9, 11),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규정 철폐(롬3:9, 22; 10:9-13),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(11).

4. 이방인들에게서 명예를 치워야 한다(10). 율법은 명예이다. 속박이다. 그리스도께서는 명예를 치우셨다(갈5:1).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할 수 없다. 죄를 보여 줄 뿐이다.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을 통해 하셨다(롬8:1-4).

2.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보고(단 한 절 12),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신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신 것 강조(히2:2-4; 막16:20), 서기오 바울과 박수 엘루마(13장), 루스드라의 앓은뱅이 고침(14장),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남(14장) 등

3. 교회의 대표 리더 야고보의 결론(13-18): 예수님의 동생, 아마도 야고보서 저자, 부활 이후 신자가 됨

1. 베드로의 말에 동의함(14-15),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택한 백성이라고 함,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라는 한 백성을 불러내신다.

유대주의자들의 문제: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?

이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(모세)과 미래 영광(왕국)을 믿었다(사11-12, 35, 60).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는가?

지금 우리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. 교회라는 신비의 기간이 있다(오순절부터 휴거).

초림과 재림 산봉우리 사이의 계곡(엡2-3장, 롬9-11장) (\*)

지금 시대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구원받으면 한 교회(갈3:28)

교회는 신비, 그러나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.

2. 대언자들의 말도 여기에 동의한다(암9:11-12). 원래는 재림 시 성취될 말씀 베드로, 바울, 바나바가 말한 것이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다.

다만 아모스의 말씀은 그들의 증언과 일치한다.

#### 판결(19-35)

성령님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(22, 28)의 판결: 1. 구원에 대한 교리, 2. 성화에 대한 교리

1. 구원 교리: 이미 살펴본 대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(11절, 엡2:8-10), 한 복음, 한 교회, 한 프로그램

구원 교리에는 수반되는 의무가 있다(약2:14-26). 구원의 삶(행위)이 나와야 한다.

2. 성화 교리: 이방인들은 세 가지 금지: 우상과 음행 그리고 피 먹는 것(20)

음식 문제는 어느 정도 중요함, 초기 그리스도인들 애찬, 여기서 피를 먹으면 유대인들 상처 지금은 어떤가? 한국은 선지 해장국 등, 나의 견해 문제없다(딤후4:3), 양심의 자유 문제

3.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율법에서 벗어남 확증, 영원한 독립 선언, 우리는 율법의 의무(의식법, 시민법, 할례 등)를 지지 않는다.

가장 중요한 점: 유대인들의 구약식 예배,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.

4. 그 결과: 1. 교회의 일치, 2.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단일한 증거 제시, 3. 이방인 교회에 기쁨(30-31),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가 올라감(32),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교회들에 전달함

#### 무엇을 배우는가?

문제와 분열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.

긍정적 변화를 이루려면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일 필요

요즘 표준 킹제임스 문제, 영혼의 자유 문제

그러나 부당한 공격과 비방, 대처해야 한다. 5주 동안 설명, 대다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됨 과거의 여러 사건들, 힘들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성장의 기회

우리의 자유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.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(갈5:1).

많은 경우 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실행 문제로 분열된다. 지금도 의복 등

사랑의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다.

항상 이 생각 “우리의 결정이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단합된 메시지를 줄 것인가?”

고전14장 외부 사람들; 정상적인 사람들인가?

영혼의 자유 강조: 그러나 이것이 방종이 되면 안 된다.

성도들 간의 말다툼, 너무 유치한 경우도 있다. 다른 미성숙자에게 어떻게 비칠까? 생각해야 한다.

자기 자랑, 목사 승배, 자기 교회 우수성 자랑